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선물      성경: 잠언 5장 10-20절

Tag: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은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0-20)

만족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선물이다.

만족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원칙이 가장 중요함.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올인 해야 한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실 경영학 용어. 최선의 선택과 올인이 성과를 내는데 중요함.)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집중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예배에 올인하라!

전도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만족을 위한 지침서이다.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행동에 조심하라, 주도면밀하게 출입하라.) 가까이(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악을 행하면서;우매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

-네 발을 삼가라;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라. (나는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것이 좋고, 내 본연의 일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대신 장로들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도와 주시오.) 말씀을 듣기 위한 첫 번째 태도.

-말씀을 듣는 것;순종하는 것 > 귀로 듣고 깨닫는 것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이란 말로 하나님께 대출하는 것(약정 기한이 있음)

-복에 대한 감사로, 감사에 대한 헌신으로

-서원하고 갚는 것>서원하지 않는 것>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돈)의 용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 소유하는 것(은을 사

량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과연 어느편이 더 만족스러울까?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음>풍요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음.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재산이 많아지면 재산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있다.

-일단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일꾼이 많아진다. 일꾼들 관리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우하려면 못된 놈들은 기어오른다. 나쁜 놈들은 부자를 무시하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한다.

-결국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위엄과 표독스러움과 의심과 징계와 무시와 내어쫓음이다. 이런 것을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저주스러운 것이고(부자 수업이 없이 부자 됨. 롯또)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 지는 것도 저주스러운 것이다.(졸부임)

-결국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어지간해서 견디기 힘들다.

-결국은 머리 좋은 놈, 권모술수를 아는 놈, 상대가 속는줄도 모르는 채 속일 수 있는 놈에게 재산이 넘어간다.

-진정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거룩한 부자다. 거룩한 부자는 대통령보다 더 존경스러운 자다.

-거룩한 부자에 도전하시라. (이영운장로의 형님이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류에 속하신 분이 아닌가 싶다.)

...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1절은 결국 거룩한 부자라고 해도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휘하에서 먹고 사는 것을 보는 즐거움 외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약간 시니컬한 표현이다. (솔로몬스러운, 냉소적인)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잘 자는 것이 만족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차라리 먹는 것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잠을 달게 자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생활에 큰 차이를 주고,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먹지 않아도 최대 40일은 너끈히 견딜 수 있어도 잠을 자지 않고는 하루도 온전히 버티어내지 못한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 일하느라 피곤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꿀잠을 자고, 만족을 얻는다. 잠자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 잠자는 동안 활동하는 잠재의식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고 의식을 깨우고 피곤해진 잠재의식은 잠을 잔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누가 내 돈을 탐내고 있을까? 진정한 내편은 누구일까?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은 만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재물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재물을 섬긴다면, 나는 재물의 종이 된다. -폐단.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내게 F16 전투기가 있어도, 내가 조종할 줄 알아야 한다. 조종할 줄 모르니까 해가 되도록 소유만 하는 것.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17절 말씀과 같은 불행을 겪게 된다.

18절 말씀부터가 진짜 만족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불행은 운명이 아니다. 행복과 만족은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 누구에게나 재물과 부요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 능히 누릴 수 있는 재능도 이미 주심.
- 이것이 각 사람의 몫이다. (그것은 네 몫이 아니야~ 동시 서시)
- 그러나 수고함으로 얻고, 수고함으로만 만족을 얻는다.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고, 일을 해야 잠이 달다)
-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당시 솔로몬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므로 죽는 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며 풀 수 없는 숙제였다.

-차라리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가 몇 년 더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솔로몬 보다 우리는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운 일 속에서도 능히 인내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기도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다

성경: 시편 119편 105-115절

Tag: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 나게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입술로도 제물을 드리라, 양과 소로만 말고, 입술로 양과 소를 대체 했다고 하지도 말고)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정의를 행함이 답이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잘 봐 달라고 하지 말라!

109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위기 중에도 범법하지 아니함이 복이다.)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왕의 법도보다 우선)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11 주의 증거들로(성경이 판례가 됨)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성경의 판례가 곧 나의 삶이 됨)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119:105-115)

